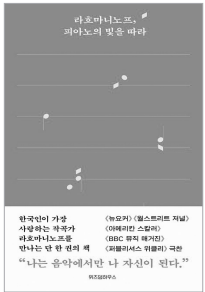


# 세계적 작곡가에 대한 오해와 편견 바로잡다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의 빛을 따라

피오나 매덕스 지음, 장호연 옮김



KBS 클래식 FM이 진행하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 설문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곡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이다. 아마도 국내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협주곡도 바로 이 곡일 것이다. ‘피아노협주곡 2번’ 2악장은 에릭 칼멘의 히트곡 ‘All by Myself’의 주멜로디로 사용돼 우리에게 친숙하고 고난이도의 3번은 영화 ‘사인’에 등장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3번은 지난 2022년 18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반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당시 연주한 곡으로 경연 실황은 무려 1845만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 출신 음악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1873~1943)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는 책이 나왔다. ‘BBC 매거진’을 거쳐 ‘옵서버’ 수석 음악 평론가로 활동중인 피오나 매덕스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의 빛을 따라’는 작곡가이자 지휘자, 피아니스트였던 라흐마니노프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며 그의 작품과 삶에 대해 들려준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책에 대해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인간의 영혼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리는 남자, 세계를 품은 망명자, 라흐마니노프가 버티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라고 평했다.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서정적인 선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중적’, ‘감상적’이라는 비평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저자는 라흐마니노프와 관련한 방대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그를 따라다녔던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겠다는 마음

으로 책을 집필했다.

책은 전성기를 누리던 음악가이자 지주였던 마흔 다섯살의 라흐마니노프가 1918년 혼란스러운 고국 러시아를 떠나 미국과 유럽으로 망명한 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라흐마니노프의 연주를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큰 행운이다.

그는 모두 1457회 무대에 섰고 그 중 1189회는 망명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 때 이루어졌다. 그는 사망하기 한달 전까지도 무대에 올라 바흐, 슈만의 곡과 자신의 작품 ‘회화적 연습곡’을 연주했다. 저자는 각종 문헌 자료를 통해 라흐마니노프는 “자신의 곡이든 아니든 자신이 연주하는 모든 곡에 창조성과 색채를 부여하고 헌신적으로 곡에 입한 연주자”이자 “자신이 연주하는 모든 곡을 분해해 속속들이 이해한 다음 무대에서 재조합하려고 한” 피아니스트였다고 말한다.

작곡가로서의 삶도 눈길을 끈다.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을 작곡하고 1934년 필라델피아오케스트라와 직접 협연한 이야기, ‘마지막 명명하는 불꽃’이라고 부른 ‘교향적 춤곡’을 완성해나가는 과정, 색소폰을 악기 구성에 넣거나 흑인 음악, 재즈 등 새로운 음악을



라흐마니노프의 대표작 ‘피아노협주곡 3번’으로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임윤찬의 당시 공연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흥미롭다.

또 같은 러시아 망명자였던 스트라빈스키를 비롯해 체호프, 고리키, 살라빈, 톨스토이, 거슈인, 본 월리엄스 등 당대 예술가들과의 에피소드는 세계 문화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저자는 책 말미에 음반을 소개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라흐마니노프 본인의 연주를 비롯해 피아노곡으로 호로비츠, 리히테르, 아르헤리치, 다닐 트리포프, 임윤찬의 연주를 추천했다. 지휘자로는 세몬 비치코프와 사이먼 래틀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로스트로포비치와 대두킨이 협연한 ‘헬로 소나타’도 들어볼 것을 권한다.

<위즈덤하우스·2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자본의 바깥(김지음 지음)=자본주의 은행을 대신해 서로의 필요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 은행 빈고’의 16년 실험을 담았다. 서울해방촌의 주거 공동체 ‘빈집’에서 시작된 빈고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계를 허물고, 이익을 개인이 가져가지 않고 다시 공동체로 돌려 쓰는 ‘사양(辭讓)’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본주의 바깥의 금융 모델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힐데와스퍼·2만2000원>

▲일본의 조선 강점, 1868~1910(F. 힐러리 콘로이 지음, 김범 옮김)=일본의 조선 강점 과정을 국제정치의 시각에서 분석한 미국 역사학자 콘로이의 동아시아사 연구서. 메이지 유신부터 1910년 병합까지 일본의 정책 변화를 추적하며, 현실주의 외교가 결국 폭력적 확장으로 이어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으로 ‘꾸준한 이상주의’를 제안한다. <테오리아·3만3000원>

▲폭군(스티븐 그랜블랫 지음, 김한영 옮김)=셰익스피어 희곡에 등장하는 폭군들을 통해 ‘폭정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탐구한다. ‘리처드 3세’, ‘맥베스’, ‘리어왕’ 등에서 드러나는 폭군의 성격,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징후를 분석했다. 16세기 영국 정치 검열 속에서 셰익스피어가 우회적으로 드러낸



권력 비판을 오늘의 세계와 겹쳐 읽게 하는 인물 에세이다. <까치·1만8000원>

▲차가운 불이 흐르는 바다(윌라 캐더 외 지음, 유라영 옮김)=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리얼리즘에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시기 영미 여성 작가들이 ‘바다’를 모티프로 쓴 단편들을 묶었다. 산업화와 사회 규범 변화 속에서 등장한 신여성의 욕망, 억압, 사랑, 자아 탐구가 다양한 결로 펼쳐진다. 시대의 냉대 속에서도 자신만의 향로를 찾아 나선 여성들을 ‘차가운 불’이라는 이미지로 포착했다. <리듬앤북스·1만7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나의 미래에게(주민선 지음)=전염병으로 어른들이 모두 사라지고 아이들만 남은 세상. 미아·미래 자매는 살아남기 위해 남쪽의 할머니 집으로 향한다. 그 여정에서 약탈자 무리, 아이들끼리 만든 벙커 사회, 환자에 기대 살아가는 종교 집단 등 다양한 공동체를 만나고, 낯선 사람의 ‘이상한 친절’과 마주친다. 서로를 지키며 나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두려운 시대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전한다. <창비·1만6000원>

▲함께라서 즐거워(프란체스카 피로네 지음, 오현지 옮김)=꼬마 돼지와 토끼는 연날리기를 하며 ‘함께 노는 즐거움’을 배운다. 친구들과 시합을 하게 되지만 바람에 연이 망가지자 두 친구는 승부보다 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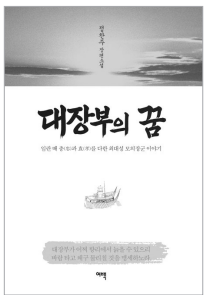
구들의 속상한 마음을 먼저 살피고 ‘같이 다시 만들자’고 손을 내민다. 프란체스카 피로네 특유의 따뜻한 그림 속에서 아이들은 경쟁보다 우정과 협력이 더 오래 남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피카주니어·1만6800원>

▲겨울빛(문지나 지음)=눈 내리는 겨울밤, 각자의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한 가족의 여정을 빛과 감각으로 담아낸 그림책. 눈발 사이로 번지는 내은사인과 차창의 불빛, 집 안을 채우는 따뜻한 조명이 대비되며 ‘하루 끝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의 포근함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고요한 겨울밤의 숨결과 다양한 빛의 속삭임은 계절의 정취를 천천히 음미하게 한다. <사계절·1만6800원>

# 임진왜란 때 의병장 보성 출신 최대성 일대기

## 대장부의 꿈

정찬주 지음



보성 출신 최대성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휘하 대술군관으로 참전해 승리에 기여했던 인물이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의병장으로 항전하다가 순절한 보성의병사에 빛나는 장수다.

정찬주 소설가가 의병장 최대성을 다룬 장편소설 ‘대장부의 꿈’을 펴냈다.

임진왜란 명장 시리즈 6번째 장편인 이번 작품은 호와 충을 다한 의병장 최대성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무엇보다 작가는 영웅주의 관점에서 탈피해 가능한 한 인간 최대성에 주목했다. 부모에 대한 효심을 비롯해 스승에 대한 존경, 병사한 아내를 향한 슬픔, 전투에서 맞닥뜨리는 인간적 고뇌 등을 세세하게 담았다.

정 작가는 “보성군이 의창(義倉)임을 재조명하고, 그 위상을 밝히는 차원에서 보성군민과 보성군수의 요구로 보성군 홈페이지에 연재했던 소설”이라며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을 한 것 같아 보성이 고향인 작가로서 염치가 생기는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고 이번 소설을 펴내게 된 계기와 소감을 전했다.

최대성은 무과에 급제한 후 한양 훈원원에서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왜구들 노략질이 빈번한 고향 보성으로 내려왔다. 누구보다 고향을 사랑했던 장수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소설 제목 ‘대장부의 꿈’은 최대성이 고향으로 내려오던 중 금강에서 맹세하며 지은 시에서 착안했다. “붓을 놓은 서생이 한번 벼슬길에 나서니/ 푸른 하늘, 큰길에도 흩먼지 날리는구나/ 대장부가 어찌 향리에서 늙을 수 있으리/ 바람 타고 왜구 물리칠 것을 맹세하리라”

시에는 문부를 겸비한 최대성의 꿈이 잘 녹아 있다. “벼슬하여 입신양명하기보다는 혹은 고향에서 편안한 학문 연마나 수덕(修德)보다는 대장부로서 왜구를 물

리치겠다고 맹세하고 있다”는 면에서 최대성의 인간적 됴됨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소설에는 최대성 관련 서사 외에도 다양한 풍습을 상세하게 표현했다. 물단지, 농악, 상량식, 전통혼례 등 풍습을 향토 언어로 리얼하게 형상화해 사료적 가치도 높다.

정 작가는 지난해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호남 민중의 충절을 담은 소설을 발간해 역사상 주목받지 못한 호남의 인물과 이야기를 재조명해 의향 전남의 위상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한편 보성 출신 정 작가는 1983년 ‘한국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샘터사 편집자로 법정스님 책을 만들면서 스님의 각별한 재가제자가 됐다. 화순 계당산 자락에 산방 이불재를 짓고 집필에 매진하고 있다. 장편 ‘아소가대왕’, ‘산은 산 물은 물’, ‘소설 무소유’, ‘이순신의 7년’ 등과 산문집 ‘암자로 가는 길’, ‘행복한 무소유’ 등을 펴냈다.

<여백·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 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한계 (km)	유산지역 (km)	원종구역 (km)
총면적(km)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km)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km)의 약86%, 국가연안습지(2,482.00km)의 약52%를 차지

##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로부터 인정

##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대서양 연안의 외딴해 갯벌 신라 섬에 둘러싸인 절경을 보이는 한국의 갯벌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모양체 모래-자갈 선형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움 갯벌 위에 출몰는 무희, 사취 암반서식지 위에서 휴식하는 종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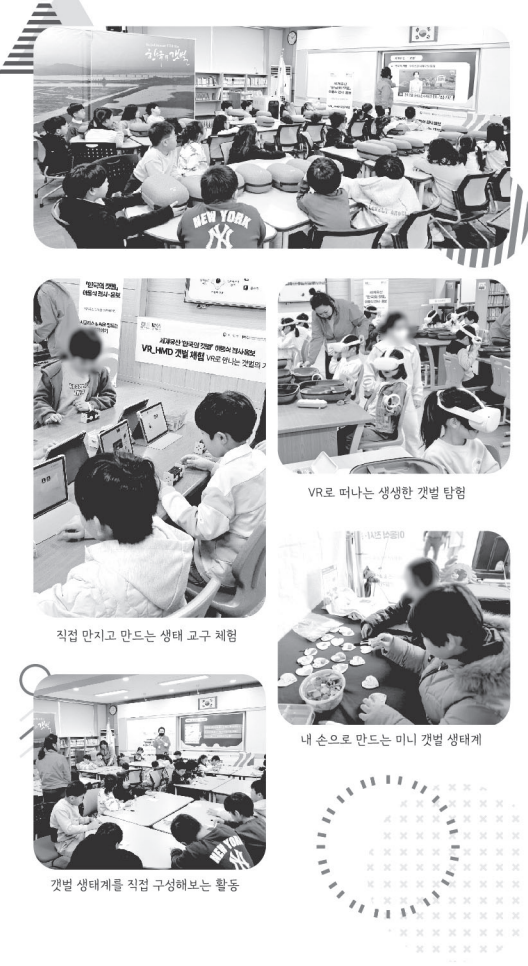
##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먹이활동, 서식굴, 쾨름을 싸움, 염낭개,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 구출까지 7가지 콘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철새이동 철새의 먹이활동 서식굴 쾨름을 싸움 염낭개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쾨름을 싸움 갯벌의 청소부 염낭개 염생식물의 역할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수업 현장!



VR로 떠나는 생생한 갯벌 탐험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성해보는 활동